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이은진** · 박세훈 · 오주은 · 양미하

원광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마음인문학에서 마음도야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국내 교육분야의 인성교육과 가치에 관련하여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 465명의 교사와 관련연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교사와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 수준의 차이가 드러났다. 즉, 일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낸 지 오래된 패러다임인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이라고 응답했으며, 종교교육과는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지식 및 규정 등에 대한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적 인식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혹은 사회적 인식을 강조하는 면이 많은 반면에, 학과 혹은 대학 차원의 정책이나 규정부족 및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관심과 인식은 아직까지 인성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에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유도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연구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대학의 학과나 학교차원 또 정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 태도, 특히 유료교육이나 교육이수시간, 비용 등에 대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급도는 교육이수시간이나 비용을 초월하여 일반교육보다 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8).

** 교신저자: 이은진,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Tel: 063-850-7063, E-mail: maum321@hanmail.net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학과 수준과 대학원생 교육은 물론 관련연구자 집단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인성·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인성·인권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혹은 대학원생 및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인성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실용적·공리적 관점에 대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 등에서 비교적 높은 분산 값을 보였다. 이는 현직교사와 관련 연구자 간에 다양한 윤리적 관점(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거나)과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종교적 자유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마음을 주제로 한 실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후속연구에서 더욱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인성, 인성교육, 마음공부

I. 들어가는 글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떤 교육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시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¹⁾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교사와 교육자,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²⁾ 교과지도와는 달리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명백한 교육과정이나 지침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데다, 용어정의마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³⁾ 인성교육의 목표설정이나 실행이 더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교과지도의 효과는 수치로의 환산이 가

1) M. W. Berkowitz,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W. Damon (Ed.) *Bring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2002), p.44.

2) 인성교육을 personality라고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격(personal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응적인 관점에서 인성교육을 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인성교육에서의 인성이란 character의 번역에 가깝고, 또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의 개념에 가깝다. 조난심, 『창의/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초등도덕교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역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2010 하계학술대회자료집), 16쪽.

3) 강선보 외,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266쪽.

능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곧바로 산출해 낼 수 있지만, 인성교육의 효과는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혼란은 더 가중되는 듯하다.

본래 인성은 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이나 응집력 있는 특별활동 그리고 일상생활 또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⁴⁾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⁵⁾ 외형적이고 양적발전에 따른 지식전달 교육체계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인성결핍내지는 인성파탄현상에 학교교육이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치관혼란과 사회 부조리현상은 도덕성의 결핍에 의한 것으로 가치관의 회복과 인성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출발해야한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일각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사회와 기관 및 일선학교에 보급·시행하여 왔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교육을 조금 확대한 창의인성교육차원에 머물러 있어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다.

21세기 우리나라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부에서는 ‘2010,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여 인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한 교육이고,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 나아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임을 나타냈다.⁷⁾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창의 인성 개발의 목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국어, 수학 과목을 비롯하여 예체능 과목까지도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고취시키는 내용 보다는 학력신장 등 교과활동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그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⁸⁾ 특히 인성교육은 생애 어느 시기에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지만, 특히 학령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시기에 형성된 인성은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⁹⁾ 학령기의 가소성(可塑性)의 특징을 볼 때 이 시기에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11), 18쪽.

5) 강선보 외, 「21세기 인성교육의 발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집(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8), 1-38쪽.

6) 최경숙 감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자료집』, 『진로가이드 북』, 2007 인성교육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7)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기본방안』, 2010.

8) Noddings, Nel, & Slote, Michael, “Changung notions of the Moral and moral education”, In Nigel Blake, Paul Smeyers, Richard Smith, & Paul Standish (Eds.),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xford: Malden, 2003), pp. 341-355.

9) E, 뒤르켐, 『교육과 사회학』, 이종각 역 (서울: 배영사, 2000), 73쪽.

미래사회는 지식의 발달 못지않게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발달수준이 높은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¹⁰⁾ 역시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는 융화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 간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철학, 생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성교육이 개념화되고 있다. 특히 학령기의 인성교육은 생애 발달특성으로 보아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¹¹⁾ 학령기의 인성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과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의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덕목과 방법을 제공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정과 교육기관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삶의 공간이자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주체자로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교사가 실제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기초일 것이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이 갖은 중요성을 다룬 연구들은 소수 이루어져 있지만,¹²⁾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초·중등교사의 인식이나 욕구조사에 관한 연구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현장은 여전히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와 관련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분야의 인성교육과 가치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국내 교육분야의 인성교육과 가치에 관련하여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0) Friedman, T. L., *The World Is Flat*, 김상철 외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도서출판 창해, 2006).

11) 원인숙, 『유아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실태비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쪽.

12) 조강모,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관계설정』 (2010 한국초등교육학회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합동학술대회), 5-32쪽.

-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및 관련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규정이나 심의 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태도는 어떠한가?
 넷째,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인성·인권교육 분야 교사 및 관련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직 교사,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졸업생, 국내 인성교육 관련 기관 연구원, 대학의 연구원,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집방법은 우선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재원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가 주관·주최한 전라북도 교육청 2011년 교원직무연수(인류정신문명의 새로운 희망, 인성교육을 통한 돌봄과 치유로서의 학급운영)에 참여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여름방학 교원직무연수에 참여하고 본 연구의 설문응답에 참여를 희망한 현직교사와 대안학교 강사, 상담소, 복지관에 재직 중인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관련연구자들을 설문대상에 포함하였다. 단일 지역에서 전체 연구의 1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하고 지역에서는 한 학교당 한명의 교사만 참여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쇄물 형태로 된 설문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한 지역의 한 학교에 한명의 교사만을 배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인성교육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연수교육을 이수하며 현장에 참가한 교사 및 관련연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인쇄물 형태의 설문지에 참여한 대상자 가운데(465명) 응답·회수된 비율은 400명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40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5명(16.44%)과 설문지의 무응답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는 14명(3.07%), 동일학교 1매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13명(2.85%)을 최종적으로 283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성 및 배경 정보

변인		빈도 (n)	비율 (%)
성별	남	70	25
	여	213	75
나이	20대	55	19.4
	30대	84	29.9
	40대	95	33.5
	50대 이상	50	17.6
현재 신분	현직 교사	134	47.3
	전직교사였거나 상담소 근무 중인 교사 및 대학원생 (석사과정/졸업)	74	26.1
	전직교사였거나 상담소 근무 중인 교사 및 대학원생 (박사과정/졸업)	44	15.5
	연구원	14	4.9
	부교수 이상	10	3.5
	조교수 이하	7	2.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참여 횟수	없음	137	46.5
	1~2회	89	32.9
	3~5회	30	13.2
	6~10회 이하	21	6.2
	11회 이상	6	2

연구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자의 비율이 75%로 높았다. 나이는 40대가 33.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신분별로 보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직교사였거나 상담소 등에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 및 졸업생이 39.7%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원은 4.0%였고, 대학부교수와 조교수가 각각 3.0%와 2.0%였다.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참여 횟수를 보면, ‘없음’이 46.5%, ‘1~2회’가 32.9%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신분과 최근 3년간 인성 교육 참여 횟수는 주요 설문응답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인성교육 분야 교사 및 관련연구자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발전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구성한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a) 대상자 배경정보, (b) 인성교육 분야 현황, (c) 인

성교육에 대한 지식, (d)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었다(〈표 2〉). 한편, 인성교육에 대한 지식은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인식(책임감, 윤리의식 등), 관련 교사와 연구자집단의 전문성, 참여 동의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지식, 인성교육 연구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및 보관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영역	문항수	신뢰도
연구대상자 기초정보	성별, 연령, 현재 신분,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연구참여 횟수	8	-
인성교육 분야 인권 윤리 현황	인성교육 시행이나 계획 여부, 인성교육전문가 심의 여부, 동의서 관련, 기타	14	-
인성교육에 대한 지식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 (책임감, 윤리의식)	9	.89 ^a
	인성교육교사의 전문성	3	
	인성교육관련 절차적 지식	11	
	연수시간 및 비용 관련 지식	7	
	교육 참여자의 비밀유지 및 보관 관련 지식	4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발전방향	인성교육 정착 방법, 교육프로그램 관련 내용, 동의서 관련 내용, 인성교육심사위원회 등	4	
인성교육 개선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인성교육 정착 및 개선을 위한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7	.93
인성교육 개선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순위	인성교육 정착 및 개선을 위한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순위	6	-
계		73	

참고: a=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설문지는 연구문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에 관한 지식과 과제 및 발전방향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지식의 경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Shadish 등(2002)¹³⁾이 새로 개발한 연구도구의 최소 신뢰도 기준인 .6을 훨씬 넘는 것이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관련 문헌을 통해 인성교육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구안하여 교육학 박사학위가 있는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삭제할 내용, 제시방법, 추가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내용만을 대상으

13) Shadish, W. R., Cook, T. D., & Campbell, D. T.,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 causal inference*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로 1차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1차 설문문항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해 교육학 및 심리학, 문예창작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과 석사과정 6명이 문항 및 문장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소 연구교수 2명, 대학교수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 수정한 후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2인의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73문항으로 완성되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인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인성교육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가와 인성교육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위험성에 대한)의 경우 역산하였다. 따라서 5점에 가까울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권역별 대표학교의 교원연수운영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2011년 4월 21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쇄물 형태의 설문지로 학교와 인성교육현장에 연구자가 직접방문하여 연수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SPSS 19.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증,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현재 신분과 연구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신분의 경우에는 현직교사를 교사집단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대학원생으로, 연구원과 조교수이상을 연구원으로 묶어 전체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참여 횟수의 경우에는 ‘없음’, ‘1~5회’, ‘6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영역 중 하나인 인성교육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분석은 기관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 현직교사의 응답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현황

인성교육 인식 및 현황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구대상별로 집단 간에 성별이나, 연령, 최근 3년간 인성 교육 참여 횟수에 따라서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신분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있었다[5(20, N=283)+49.5, $p<.01$].

최근 3년간 아동 및 성인 대상 인성교육이나 교사연수관련학회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연구자의 연수 참여 횟수를 ‘없음’, ‘1~2회’, ‘3~5회’, ‘6회 이하’, ‘11회 이상’으로 단순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회 이상’의 집단과 ‘없음’ 집단 간에 기본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권 인성교육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는 ‘없음’ 집단이 137명(46.5%)이었고, ‘1~2회’ 집단은 89명(32.9%)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방법 및 절차적 지식 측면에서는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없음’집단과 ‘1~2회, 3~5회’ 집단 간의 평균차가 다른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3〉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취약한 영역

변인	세부 내용		빈도 (n=283)	비율 (%)
인성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마음		17	6
	윤리나 도덕교육		77	27
	종교교육		90	31
	명상		87	30
	잘 모르겠다		12	4
인성교육대상자로서 교육받기 가장 취약한 계층	1순위	장애유아	79	27
		정서/행동장애	69	24
	2순위	집단따돌림 아동	41	14
		인터넷 중독 아동	36	13
	3순위	모든 아동 (학생)	34	12
		모든 아동의 부모	24	8

〈표 3〉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성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조사한 결과, ‘명상’, ‘마음’, ‘윤리나 도덕교육’, ‘종교교육’, ‘잘 모르겠다’ 중에서 ‘윤리나 도덕교육’과 ‘명상’이 각각 77명(27%)과 87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종교교육 역시 90명(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성교육을 받게 될 교육대상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1순위, 정서행동장애학생 2순위, 집단 따돌림학생 3순위 순서로 나타났다. 〈표 3〉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3 순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인 영역은 기타 학생이나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 및 학과의 인성교육 규정, 심의, 교육 여부

변 인	세부 항목 (n=283/%)		
	예 (n=144)	아니오 (n=113)	잘모르겠다 (n=24)
학교 및 대학교/학과의 인성교육 규정 여부	47 (20)	89 (34.5)	109 (42.2)
학교 (기관)의 인성교육 실시 여부	32 (15)	75 (28.7)	151 (57.9)
학교 및 학과의 인간, 인성교육 연구여부	37 (17)	104 (39.8)	116 (45.3)
추후 인성교육 실시여부	11 (20)	51 (65.4)	13 (16.7)
관련수업 (연구방법)등에서 교수자의 선택에 의한 연구 여부 (전문가 집단필수 이수과목)	16 (27)	53 (71.6)	2 (2.7)

〈표 4〉는 학교 및 학과 수준에서 인성교육 규정 및 연구여부 그리고 인성교육실시에 대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교 혹은 학과에서 ‘인성교육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명 (20%)으로 낮았고, 학교 혹은 학과에서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가 32명(15%), 대학교 및 학과 수준에서 ‘인성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7명(17%)으로 나타났다. 또, 추후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명(20%)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한 연구원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설문지 회수율이 낮았고(8명), 이 중 연구자가 속한 대학(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비율도 6.4%(5명)로 낮게 나타났다.

〈표 5〉 인성교육 방법

변 인		빈도 (n=283)	비율 (%)
현재 수행 방법	학교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함	18	22
	학과에서 개발한 인성교육프로그램 활용함	12	9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함	68	54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	17	13
	사이버교육 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	7	6
	기타 (없다 등)	19	15
추후 계획	학교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활용함	28	29
	학과에서 개발한 인성교육프로그램 활용함	15	15
	관련 수업시간에서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함	36	37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	20	20
	사이버교육 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	6	6
	기타	18	18

인성교육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현재 수행 중인 인성교육 방법은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하는 방법이 64명(50.4%)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명(54%)으로 나타났다. 추후 계획 역시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한다는 비율이 36명(37%)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는 비율은 6명(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 학교 및 학과의 인성교육 규정, 심의, 교육 여부

변인	세부 항목 n (%)		
	예	아니요	필요 시
교육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문서형태로 동의서를 얻음	150 (53)	68 (24.)	64 (27)
교육수행 시 반드시 교육참여자, 보호자에게 교육내용 및 절차를 자세히 설명함	191 (67)	22 (8)	70 (25)
교육 수행 시 반드시 교육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혜택이나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181 (64)	23 (8)	78 (28)
교육 수행 시 반드시 교육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157 (55)	27 (10)	98 (37)
교육참여 동의서를 참여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대리인에게 1부 복사하여 제공함	93 (33)	81 (26)	109 (39.)
교육수행 도중 윤리나 인권문제가 있어 도중에 그만 둔 경험 있음	44 (16)	229 (84)	-

인성교육수행 시 참여 동의서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주요 항목만 살펴보면,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문서형태로 교육 참여 동의서를 얻는 비율이 약 150명(53%)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시 반드시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비율은 191명(6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참여 동의서를 참여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대리인에게 복사하여 제공하는 비율은 93명(3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정신과 수진을 받았거나 상담실 수진을 받은 경우, 등교거부, 의학적진단명, 평가결과, 기록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별도의 잠금 장치는 없지만 보안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명(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자료처럼 보관한다는 응답이 27.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별도의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한다는 비율이 11.4%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행 도중 윤리나 인권문제가 있어 도중에 그만 둔 경험 있음’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명(13.7%)이었고, ‘아니오’는 220명(86.3%)이었다. 이것으로 교육수행 도중 밝히기 어려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질병 및 질환 등의 갈등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

거나 교육참여자가 참여를 지속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 도중에 그만 둔 경험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인성교육 연수나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변인	현재 신분 (n=283)			
	교사 (n=145)	석사 (n=71)	박사 (n=46)	연구원 (n=25)
인권, 인성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부족	105 (59.3)	24 (58.5)	26 (76.5)	11 (32.4)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75 (42.4)	22 (53.7)	19 (55.9)	10 (24.4)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부족	68 (38.4)	20 (48.8)	17 (20.6)	8 (19.5)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인식부족	27 (15.3)	11 (26.8)	11 (32.4)	5 (12.2)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원칙 부족	24 (13.6)	10 (24.4)	11 (32.4)	4 (9.8)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부족	21 (11.9)	8 (19.5)	3 (8.8)	4 (9.8)
대학차원의 정책이나 규정 부족	13 (7.3)	5 (12.2)	1 (2.9)	3 (8.8)
학과차원의 규정이나 원칙 부족	11 (6.2)	4 (9.8)	0 (0.0)	3 (8.8)

* 참고: 중복응답 문항으로 개별 문항의 합은 전체보다 많을 수 있음.

〈표 7〉은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인성, 인권윤리, 책임의식이나 인식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 집단에서는 105명(59.3%)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부족과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인성교육 관련 규정 및 심의 등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수준

인성·인권 분야 교사 및 관련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 지식 및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작성한 설문조사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변인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교육참여자 비밀유지 및 보관 관련 지식과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 관련 절차적 지식이 각각 평균 4.1과 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평균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의 경우, 평균 3.7에서 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지식은 표준편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세부 문항에 대해 탐색한 결과에 의하면(〈표 8〉),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과 세부적인 인성교육문항 간에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지식 및 인식수준을 묻는 세부문항에서는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생활보호를 해야 한다’와 ‘교육 참여자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문항은 평균 4.1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나는 인성교육에 꼭 들어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 혹은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에 있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나는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항목의 평균이 3.01로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아동 혹은 취약한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8〉), 인성교육[$F(3, 283)=5.65$, $p<.01$]에 대한 지식과 비밀유지[$F(3, 283)=1.87$, $p<.05$]에서 연령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대상 특성에 따른 인성·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수준

변인	나이				현재 신분			연수경험 (횟수)		
	20대	30대	40대	50 이상	교사	대학원생	연구원	없음	1~5회	6회 이상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 (책임감 및 윤리)	3.6 (.49)	3.7 (.61)	3.9 (.67)	3.8 (.64)	3.7 (.58)	4.0 (.65)	3.7 (.67)	3.6 (.56)	3.8 (.66)	4.1 (.56)
인성교육 관련 지식	1.7 (.81)	2.1 (.96)	2.4 (1.1)	2.5 (.91)	2.0 (.90)	2.4 (1.26)	2.6 (1.02)	1.9 (.87)	2.4 (1.1)	2.4 (.99)
인성교육방법 및 인성교육 관련 절차적 지식	4.0 (.43)	3.9 (.47)	4.0 (.58)	3.9 (.52)	3.9 (.49)	4.1 (.49)	3.8 (.63)	3.8 (.51)	4.0 (.52)	4.1 (.50)
인성 교육 참여 동의서 관련 지식	3.8 (.49)	3.8 (.59)	3.9 (.62)	3.9 (.58)	3.8 (.56)	3.9 (.55)	3.6 (.60)	3.8 (.58)	3.8 (.59)	4.0 (.46)
인성 교육 참여자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기록보관 관련 지식	3.9 (.61)	4.0 (.66)	4.2 (.69)	4.1 (.70)	4.0 (.67)	4.2 (.64)	3.9 (.80)	3.9 (.68)	4.1 (.72)	4.2 (.55)

한편, 현재 신분을 교사, 대학원생, 연구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성교육에 관한 기본인식[$F(2, 283)=2.38$, $p<.01$], 인성교육관련 기본

지식[$F(2, 283)=6.93, p<.01$], 인성교육관련 절차적 지식[$F(2, 283)=3.83, p<.05$], 교육 참여 동의서 관련 지식[$F(2, 283)=.9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방법적 접근태도

인성교육 정착 과제 및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9〉), 교사 집단에서는 교육학이나 사범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63명(36.8%)이었고, 전문가 단체에서 인성교육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명(22.2%)으로 다른 방법보다 높았다. 또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성교육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정부에서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는 비율도 28%로 나타났다.

반면, 인성교육에 대한 교과목 운영 및 교육학과 내에서의 심사 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9〉 인성교육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변인	현재 신분 (N=283)		
	교사 (n=138)	대학원생 (n=107)	연구원 (n=18)
교육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3 (36.8)	5 (14.7)	6 (16.7)
교육학과에서 인성교육 연구를 1차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14 (8.2)	1 (2.9)	4 (7.9)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성교육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15 (8.8)	8 (23.5)	0 (0.0)
정부에서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28 (16.4)	7 (20.6)	7 (19.4)
인성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내부적인 심사방법 및 원칙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5 (2.9)	2 (5.9)	2 (5.6)
인성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인성교육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8 (22.2)	9 (26.5)	15 (41.7)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7 (4.1)	1 (2.9)	0 (0.0)
기타	1 (.6)	1 (2.9)	2 (5.6)

한편, 교육학이나 교육대학 등에서 교사 및 연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교사집단의 경우에는 ‘인성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명(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인성 윤리 및 책임감 교육이 35명(24%)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동의서 작성 방법이 대학원생에서는 33명(2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한 후 확인하는 방법 활용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원 이하에서는 교육학과나 윤리교육과 등 대학 안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는 비율이 18.8%로 대학원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수경험 횟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인성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및 방법

변 인	현재 신분 (N=283)		
	교사 (n=145)	대학원생 (n=114)	연구원 (n=25)
참여 동의서 작성 방법	18 (12)	26 (23)	13 (4)
인성교육 및 책임감 교육	35 (24)	28 (25)	9 (36)
인성교육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 규정, 가이드라인	92 (63)	33 (27)	15 (60)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	20 (18)	26 (23)	2 (0)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부모가 연구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적 대리인 혹은 후견인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31.7%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외에 국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파견하여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사집단의 경우, 법적 대리인 혹은 후견인의 비율이 35.6%로 나타난 한편, 대학원생과 연구원집단에서는 각각 61.1%, 63.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국가가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파견하여 대리하도록 한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규정에 관한 내용을 심사한다면 누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성인권 교육관련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와 관련된 교육단체의 관련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인성교육 심사 위원회에 적합한 관련자

변인	현재 신분 (N=283)		
	교사 (n=145)	대학원생 (n=114)	연구원 (n=25)
인성교육관련 전문가 (교수, 연구자 등)	102 (70)	34 (32)	23 (23)
인성 인권 관련단체의 관련자	10 (7)	11 (12)	4 (41.7)
제3의 인성교육 전문가	23 (16)	16 (18)	1 (2)
인성교육연구방법에 관한 전문가	8 (6)	9 (11)	5 (9)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9 (11)	-
학부모 단체의 관련자	3 (21.6)	17 (18)	4 (3)
기타	-	-	-

4. 인성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성교육의 정착을 위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인성교육에 대한 가치인식과 공유 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사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표 12〉). 한편,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원생 및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인성교육에 대한 교과목 개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조교수 이하 집단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과제별 시급도와 중요도

항목	교사	순위	연구원	순위	전체	순위
개인의 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4.6 (.82)	①	4.1 (.97)	③	4.38 (.82)	③
대학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인성교육 원칙 등)	4.0 (.86)	⑦	3.3 (1.12)	⑨	3.7 (1.05)	⑦
학과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위와 같음)	3.7 (1.14)	⑧	3.1 (1.32)	⑩	3.4 (1.25)	⑧
정부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위와 같음)	4.1 (.91)	⑥	3.6 (3.94)	⑦	3.9 (1.21)	⑥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4.57 (.70)	②	3.9 (1.27)	⑤	4.2 (1.02)	⑤
연구공동체의 인성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4.6 (.58)	①	4.2 (.95)	②	4.4 (.79)	②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인권의식 고양	4.5 (.70)	③	4.0 (1.00)	④	4.3 (.88)	④
대학원생 및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4.6 (.66)	①	4.4 (.77)	①	4.5 (.71)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4.4 (.77)	④	4.0 (1.01)	④	4.2 (.90)	⑤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 (인성교육 윤리 원칙 등)	4.3 (.75)	⑤	4.2 (.99)	②	4.3 (.87)	④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4.0 (.86)	⑦	3.8 (.99)	⑥	3.9 (.92)	⑥
언제라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3.4 (1.15)	⑨	3.4 (1.02)	⑧	3.4 (1.08)	⑧
인성교육에 관한 교과목 개발	3.4 (1.15)	⑨	3.3 (1.00)	⑧	3.2 (0.08)	⑧

평균값을 통한 분석과 함께, 중요도와 시급도를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표 13〉에서는 중요도와 관련해서 1순위에서 3순위를 보면, 개인의 책임의식 고양과 인성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두 집단 모두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에는 교사집단에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를 뒤야 한다가 22.2%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응답자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개인의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에 뒤를 이어 연구공동체의 인성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16.7%),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11.9%)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대학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11.9%, 인성교육교사나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9.8%로 다른 문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에는 대학원생 및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16.7%, 인성교육에 관한 교과목 개발이 1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30.6%)가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이 25.0%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자기통제가 19.4%,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16.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3〉 인성교육 과제별 중요도 순위

	교사 (n=174)		대학원생 관련연구자 (n=109)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1순위	인성교육 가치 인식과 공유	74 (43)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43 (40)
2순위	대학이나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50 (29)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가치 인식과 공유	36 (33)
3순위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50 (29)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32 (29)

〈표 14〉에서 인성교육 과제별 시급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집단에서는 중요도와 1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2, 3순위에서는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성교육의 가치인식과 공유에서 1순위로 74명(43.0%)으로 나타났고,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2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급도순위에서는 대학원생 및 관련연구자 집단에서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에 높게 나타났다.

〈표 14〉 인성교육 과제별 시급도 순위

	교사 (n=181)		연구원 (n=102)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1순위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63 (35)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38 (37)
2순위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58 (32)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31 (30)
3순위	대학원생 및 학회,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61 (34)	대학원생 및 학회,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3 (32)

〈표 15〉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개인의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이나 제도, 그 외에 대학차원, 학과차원, 정부차원의 규제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5〉 인성교육 과제별 시급도 순위

	교사집단 (n=171)		연구원집단 (n=92)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1순위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40 (47)	개인 인성교육과 책임의식 고양	37 (40)
2순위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가치 인식과 공유	54 (32)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가치 인식과 공유	30 (33)
3순위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가치 인식과 공유	54 (32)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25 (27)

〈표 16〉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연수가 이루어진다면,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연수시간에 대한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0시간 정도가 120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50시간 이내도 116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서 순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전문연수가 이루어져 있다면, 교육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가 1순위, ‘소속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가 2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유료’와 ‘무료’에서는 ‘무료’로 해야한다고 263명(96.19%)으로 현저하게 높아서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인성교육 전문연수시간 및 비용

구분		빈도 (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시간	150시간	46	15.20	20.0%
	100시간 정도	120	42.06	56.5%
	50시간 이내	116	41.82	43.5%
	합계	283	100.0	100.0
비용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158	56.27	78.4%
	소속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125	43.72	91.4%
	유료	20	3.80	4.4%
	무료	263	96.19	95.7
	합계	283	100.0	100.0

4. 인성교육의 실용성과 공리적 관점에 대한 인식

〈표 17〉 교사연수 프로그램 후 인성교육과 관점에 대한 인식변화

문항	연수전	연수후	증감
나는 인성교육, 마음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3.12	3.87	.75 ↑
인성교육 참여자의 개인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3.68	4.61	.93 ↑
나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3.12	3.65	.53 ↑
나는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	3.16	3.48	.32 ↑
아이들을 개선하려는 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이다.	1.32	1.30	.02 ↓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2.44	2.43	.01 ↓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다.	4.20	4.61	.41 ↑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능력이 있다.	4.28	4.43	.15 ↑
나는 직업에 대하여 만족한다.	3.64	4.43	.79 ↑
나는 아동 혹은 성인 대상 인성교육을 시행할 때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3.48	4.22	.74 ↑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만족한다.	3.48	4.22	.74 ↑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보수 (급여)에 대하여 만족한다.	3.36	3.78	.42 ↑
내가 속한 조직의 업무관련 교육 (훈련)에 대하여 만족한다.	3.32	3.61	.29 ↑

〈표 17〉에서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연수 실시 전·후 참가자의 인성교육개념, 직무,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5점 만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사전에는 인성교육이 단순히 종교교육이나 윤리교육으로 알고 그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에서(3.12), 사후에는 인성교육에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치를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한 사후점수(3.87)의 비율이 증가(.75 ↑)하였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에 인성교

육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에 대해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거나 고민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달라진 점(.93↑)으로 나타났다(<표 17>).

아울러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53↑)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으며(.41↑)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32↑)와 학생들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문제를 개선하려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를 높이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01↓)는 점에서 점수가 감소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언제라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관과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다 등에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18〉 교사 연수 서비스 이용 후 교사들의 인성교육 현장활용도

변인	빈도 (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그렇다	223	82.12	76.1
그렇다	42	13.68	29.6
보통이다	17	4.18	4.3
합 계	283	100.0	100.0

〈표 18〉에서는 교사 연수 서비스 이용 후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용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226명, ‘그렇다’가 42명으로 집단 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인성교육은 오랫동안 교육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인성교육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가치에 관련하여 현 상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관련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구체적 경험 및 지식수준 간에 차이가 드러났다.

즉, 교육적으로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성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1.9%가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이라고 했으며, 이는 종교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에서 구체적인 용어 혹은 지식과 관계없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당연한 내용에 대한 인식수준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높은 평균값 혹은 비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 혹은 용어에 대한 문항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나는 인성교육, 마음공부라는 개념에 익숙하다’는 문항의 평균은 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나는 인성교육에 꼭 들어가는 내용을 잘 안다’는 문항 역시 3.09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았다.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나는 아이들을 잘 안다는 문항의 평균은 각각 2.19와 2.34로 다른 문항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인성교육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이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성, 인권교육상황에 노출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적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적용하여할 교육훈련이나 마음공부, 인간관계이론, 정신분석이론, 명상 등의 심리치료용어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이나 논의의 장에서 흔히 언급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내용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형태의 진술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성교육 인식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인성 교육 참여자가 참여를 지속하지 않기 원할 경우에 대한 문항으로 본 연구결과 참여 동의서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이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참여를 철회한다는 비율은 14.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이해수준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인성교육 적용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성교육에 관한 규정이나 심의 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에 걸쳐 개인적이나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추후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혹은 사회적 인식을 강조하는 접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과 혹은 대학 차원의 정책이나 규정 부족, 혹은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관련 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아직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단 개인, 연구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써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대학 차원, 학과 차원, 정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옳을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정책을 유도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 태도, 특히 유료교육이나 교육이수시간 등에 대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비록, 인성교육 과제별 시급도와 중요도에서는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항목’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세부적인 수행전략이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문항을 보면, 교육학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해 1차 심사를 수행하거나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현재뿐 아니라 추후 계획 측면에서도 사이버교육 후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한 수업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집단만을 대상으로 현재 인성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과 모르겠다는 비율이 82.1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교육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에 그쳤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급도는 일반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학과 수준에서 일정 수준의 인성·인권교육과 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의 학과 수준과 대학원생 교육은 물론 관련연구자 집단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서 전문가 집단 간에, 즉 교사집단과 대학원생집단, 연구원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집단에서는 인성·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인성교육 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인성,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인식 부족,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간주하는 반면, 대학원집단에서는 연구공동체의 연구 과정에 대한 인성·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과 인성교육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성교육 지식과 인식을 측정하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교사집단에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응답에서도, 특히 대학 차원에서 인성교육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해 대학원생 집단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과제별 중요도 순위와 시급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교사

집단은 관련연구자집단보다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를 중요하고 시급하게 본 반면, 교사가 아닌 관련연구자집단에서는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혹은 대학원생 및 연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인성·인권분야의 더욱 많은 의사결정 능력을 소유한 연구원집단(교수포함)에서 인성교육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집단에서는 국가 수준의 규정이나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면과, 전문가 단체에서 인성교육원칙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국가 수준의 규정이나 제도, 혹은 학회 차원의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언제라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 즉 실용적·공리적 관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3.98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분산 값을 보였다. 이는 현직교사와 대학원생, 혹은 현직 연구자 간에 다양한 윤리적 관점, 즉,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종교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교사연수 프로그램 시행 전·후 참가자의 인성교육개념, 직무, 직무교육에 대한 인식(5점 만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사전에는 인성교육이 단순히 종교교육이나 윤리교육으로 알고 그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에서(3.12) 사후에는 인성교육에서 마음에 대해 공부를 하고 가치를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한 사후점수(3.87)의 비율이 증가(.75↑)하였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에 인성교육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에 대해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고민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달라진 점(.93↑)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성교육의 내용을 잘 알게 되었으며(.53↑)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될 수 있으며(.41↑)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32↑)와 학생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문제를 개선하려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를 높이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01↓)는 점에서 점수가 감소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 교사연수 서비스 이용 후 교사들의 응답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용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216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인성교육 현황을 분석할 때, 국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교육학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즉, 국내 교육학과마다 개별적인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면 현황에 대한 결과가 보다 실제로 근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능하면 많은 대학 및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자료수집을 병행했지만 데이터 수집

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특정 학교에서 1%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했지만, 특정 학교의 현황이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취약한 연구참여자로서 아동 당사자는 물론 소외아동집단과 학부모 등과 관련된 인성교육 이슈들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당사자인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구방법론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유형별 문제상황에 대한 사례수집 및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질적 연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좋은 연구설계는 인권, 인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수행 시 인성교육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한 연구참여자와 관련하여, 인문학 외적인 자연과학,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인성교육 윤리의 원리에 대한 공동체와 연구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 결 론

이 연구는 인성교육에서 마음인문학을 활용한 마음도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국내 인성교육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가치에 관련하여 현 상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즉,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을 교육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낸 지 오래된 패러다임의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이라고 응답했으며, 종교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인성교육에 관한 규정이나 심의 등에 대해 전반에 걸쳐 개인이나 사회적 인식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혹은 사회적 인식을 강조하는 접근이 많지만 학과 혹은 대학 차원의 정책이나 규정 부족, 혹은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관련 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과 낮은 인식수준 때문에 아직 인성교육이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대학의 학과나 학교차원 또 정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 태도, 특히 유료교육이나 교육이수시간, 비용 등에 대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급도는 일반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학과 수준에서 일정 수준의 인성·인권교육과 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의 학과 수준과 대학원생 교육은 물론 관련연구자 집단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성·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인성교육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인성,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인식 부족,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혹은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인성교육을 보다 적극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문항 등의 실용적·공리적 관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분산 값을 보였다. 이는 교사는 물론 관련 연구자 간에 다양한 윤리적 관점(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거나)과 종교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종교적 자유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마음을 주제로 한 실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정교화 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보 · 박의수 · 김귀성 · 송순재 · 정윤경 · 김영래 · 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발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집,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8, 1-38쪽.
- 강선보 · 박의수 · 김귀성 · 송순재 · 정윤경 · 김영래 · 고미숙,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2008.
- 김귀성, 「마음공부와 도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방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9집, 2011.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방안」,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2010.
- 교육부, 「시 · 도 이성교육담당 전문직 연찬회」, 『세계 속의 한국인 육성을 위한 학교 가정의 인성교육 혁신 방안』, 1995.
- E. 뒤르켐, 『교육과 사회학』, 이종각 역, 배영사, 2000.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김용주 외 (역),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7.
- 이돈희, 「어떤 인간으로 교육할 것인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5.
- 원인숙, 「유아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실태비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강모,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관계설정」, 한국초등교육학회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합동학술대회, 2010.
- 조난심, 「창의/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초등도덕교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역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0 하계학술대회자료집.
- 조난심 · 이종태, 「인간교육의 개념을 정립을 위한 연구」, 『교육철학』, 3, 1997.
- 손원영,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 2010.
-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11.
- 최정숙 감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자료집」, 『진로가이드 북』, 2007 인성교육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 Friedman, T. L. *The World Is Flat*, 김상철 외 역,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도서출판 창해, 2006.
-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 품성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2000.
- 허승희, 「초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분석」, 『초등교육연구』, 12(1), 1998.
- M. W. Berkowitz,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W. Damon (Ed.), *Bring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2002.
- Hamington, Maurice, "Embodied ca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Lauhlin, Terence H., & Halstead, J. Mark, Education in Character and Virtue. In J. Mark Halstead, & Terence H. McLaughlin (Eds.), *Education in Morality*, London: Routledge, 1999. pp. 132-163.

- Noddings, Nel, & Slote, Michael. "Changung Notions of the Moral and Moral Education".
In Nigel Blake, Paul Smeyers, Richard Smith, & Paul Standish (Eds.),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xford: Malden, 2003. pp.341-355.
- Shadish, W. R., Cook, T. D., & Campbell, D. T.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 Causal Inference*.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원고접수 : 2012년 1월 16일 1차 심사 : 1월 25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소개 : 이은진

- ① 전공 : 정서 · 행동장애아교육 / 소속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연구교수
- ② 관심영역 : 인성교육, 마음교양강좌, 예술치료, 한국인의 심성, 정서 · 행동장애
- ③ 주요논저 : 예술치료를 활용한 마음교양강좌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④ E-mail : maum321@hanmail.net

연구자 소개 : 박세훈

- ① 전공 : 아동 · 가족학 / 소속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 ② 관심영역 : 인성교육, 마음공부, 청소년 상담
- ③ 주요논저 : 종교 유형별 자아방어기제와 의사소통유형간의 관계
- ④ E-mail : won7672@nate.com

연구자 소개 : 오주은

- ① 전공 : 원불교학, 문예창작학 / 소속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 ② 관심영역 : 인성교육, 마음공부, 스토리텔링, 글쓰기 치유
- ③ 주요논저 : 이창동 시나리오 작법 연구
- ④ E-mail : magic0428@hanmail.net

연구자 소개 : 양미하

- ① 전공 : 원불교학, 문예창작학 / 소속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 ② 관심영역 : 인성교육, 마음공부, 글쓰기와 마음치료
 - ③ 주요논저 : 김명화 드라마 작법 연구
 - ④ E-mail : blueysa@hanmail.net
-

Abstract

Perception and Actual Performance of Character Education

Lee, Eunjin · Park, Saehoon · Oh, Jueun · Yang, Miha

Wonkw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investigative research attempted by Mind-Humanities as a foundational research for development of Mind Cultivation Program. It was carried out with 465 character and human rights education teachers and teachers-to-be as the target, in order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and value in national character education field, and search for a direction of development, on basis of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largely into five categories.

First, a difference was revealed between the general detailed experiences and level of knowledge of teachers and teachers-to-be in terms of the general perception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In other words, they replied that it is ethics education or morality education of a paradigm that had long since was revealed of its educational ineffectiveness, and showed a ratio of a level similar to religious education.

Secondly, overall, there was a strong trend of the perception on rules or review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approaching from an individual or social perceptive level. Compared to there being a lot of approaches emphasizing individual sense of morality or responsibility, or social perception, there were low insufficiency in policy or rules as a department or university, and programs and materials to carry out character education.

Such results are a telltale sign of the interest and low perception on character education of national special field related researchers have yet to expand into a systematical level, and the problem is that they are passive in terms of inducing a detailed system or policy.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approach in department of university, university itself or government level is only possible when a shift in perception is carried out as immediately.

Thirdly, there was a passive trend in the methodical approach attitude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paid education, completion time of education, and expenses etc. The importance and desperateness of character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completion of general subject education. For this, there is a need to make completion and review of character/human rights education compulsory from the university or department level, and a need to approach character education actively.

Fourthly, the reasons that character education is not carried out well were revealed to be the teacher group having insufficient perception and sharing regarding the values of character and human rights, individual character regarding participants of character education, insufficiency of sense of responsibility or perception regarding human rights, overall insufficiency of social perception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Therefore, rules or system and continuous education regarding postgraduate students and those related to the research at the university level is desperately needed, and endeavors to more actively realize character education appears to be needed.

Lastly, there was a comparatively high distribution value regarding practical/utilitarian perspective in questions such as ‘I have intentions to participate regardless of religion if there is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his shows that there are conflict regarding religion, or that institutions overseeing activities, in other words various ethical perspective between active teachers, teachers-to-be or active researchers are different; I consider that a practical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ith the mind as the theme, as a alternative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and neutrality of teachers and students at the site of Korean education, is desperately needed, and it should be elaborated in the following researches.

Key words : Character, Character Education, Mind Study